

서둘러 미국에 들어온 LPGA 스타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박인비(32·왼쪽)와 박희영(33·가운데), 김효주(25·오른쪽) 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서둘러 미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탓이다.



당겨 지난 27일로 한국을 떠났다.

이들이 서둘러 미국행을 결정한 것은 언제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만약 사태가 더 심각해져 미국이 조치를 강화하면 LPGA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은 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25)은 지난 26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고진영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상이 심해져 미국에서 치료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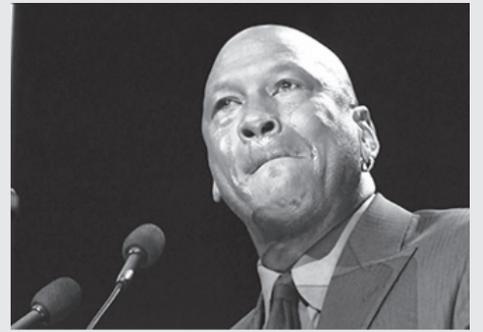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강제 휴식기'를 갖고 있는 LPGA 투어는 오는 19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리는 파운더스컵으로 시즌을 재개한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희영은 전날 LA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희영은 당초 3월 3일 또는 4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희영 측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출국 일정을 급하게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박인비도 일정을 앞당겨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당초에는 3월 9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둘러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효주도 3월 14~15일로 계획했던 미국행 계획을 앞

'농구황제' 조던, 코비 추모하며 폭풍오열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7·사진)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 브라이언트를 추모했다.

지난 25일 'OSEN'에 따르면 브라이언트 부녀의 추모식이 전날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은 현역시절 코비의 등번호 24번과 딸 지아나의 등번호 2번 숫자가 들어있는 날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코비의 아버지 조 브라이언트, 아내 바네사와 세 명의 딸 등 가족들을 비롯해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등 레전드, 현역시절 스승인 필 잭슨, 스테판 커리, 러셀 웨스트브룩 등 현역스타들이 모두 모여 슈퍼스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팝스타 비운세는 직접 노래를 부르며 코비와 끈끈한 정을 보였다.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조던의 추도사였다. 조던은 "코비는 제 소중한 친구였고, 제 막내 동생 같았다. 코비는 새벽에도 내게 문자를 보내며 농구에 대해 묻곤 했다. 코비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농구선수가 되고 싶어 했다. 나는 될 수 있는 최고의 형이 되고자 했다."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조던은 "코비에게 당했다. 내가 우는 장면을 또 십년 동안 보게 생겼다."면서 농담으로 자신을 위로했다. 이어 조던은 "코비가 사망하면서 나의 일부도 함께 죽었다."며 쓰라린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조던은 "편히 잠들어라. 동생"이라며 코비의 마지막 길을 추도했다.

2021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미국·일본·대만 개최



2021년에 열리는 세계야구 국가대항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의 일정과 경기 장소가 확정됐다.

지난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전날 내년으로 5회째를 맞이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의 개최지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파크, 일본 도쿄돔, 대만 타이중의 인터콘티넨털구장과 타오위안 인터내셔널구장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개 나라가 출전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본선은 내년 3월9~24일 열린다. 체이스필드에선 3월14~18일 C조 조별리그, 말린스 파크에선 3월15~19일 D조 조별리그가 각각 벌어진다. 타이중 인터콘티넨털구장은 3월 9~13일 A조 조별리그가, 도쿄돔에선 같은 기간 B조 조별리그가 열린다. 한 조당 5개 팀이 조별리그에서 경쟁하고 각 조 1, 2위가 8강 라운드에 진출한다.

A·B조의 8강 라운드는 3월 16~17일 도쿄돔에서, C조와 D조의 8강 라운드는 3월 20~21일 말린스 파크에서 각각 치러진다.

각각의 8강 라운드 상위 1, 2위를 차지한 4개 팀은 챔피언스라운드에 진출해 3월 22~24일 말린스 파크에서 우승을 다툰다.

조 편성과 세부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